

## 탐 출판사 인문학 특강 안내

### 철학

#### 1. “박지원이 생각하는 공부란?” 박지원과 <열하일기>

· 도서명: 《박지원, 열하로 배낭여행 가다》

· 서지정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48413354&start=slayer>

· 작가 소개: 김경운

대학교 시절부터 공부한 문학, 역사, 철학, 사회과학을 통째로 활용 할 수 있는 인문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에 ‘자유청소년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 중이다.

· 내용: 사신단에 합류하여 처음 중국에 간 박지원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땠을까? 조선이 업신여기는 청나라 사람은 물론, 마부에게서도 끊임없이 배우는 박지원의 눈을 통해 되돌아보는 진짜 공부 이야기

#### 2. “우리는 왜 학교에 가야 할까?” 루소와 <에밀>

· 도서명: 《루소, 학교에 가다》

· 서지정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6686682>

· 작가소개: 조상식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사회학으로 석사 학위를, 교육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내용: 루소의 교육 사상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저서 《에밀》을 통해 어떤 교육이 올바른 것이고, 이 시대의 교육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다.

#### 3. “마르크스가 21c 서울에 온다면 어떤 말을 할까?”

##### 마르크스와 <자본주의>

· 도서명: 《마르크스, 서울에 오다》

· 서지정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7291462>

· 작가소개: 박홍순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와 소통하며 인문학을 친근한 벗으로 만드는 일에 애

정을 쏟고 있다. 인문학이 생생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순간 화석으로 굳어진다고 생각하는 저자는 일상의 삶과 철학적 사유가 밀착된 글을 써 왔다.

· 내용: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철학자 마르크스가 들려주는 자본에 주눅 들지 않고 살아가는 법, 자본주의의 속성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과 미래를 열 수 있다.

#### 4. “생각에도 왕도가 있다?” 데카르트와 <방법적 회의>

· 도서명: 《데카르트, 철학에 탄죽을 걸다》

· 서지정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51257412>

· 작가소개: 김용관

수학 속에서 철학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일을 즐긴다. 평소에는 수학의 재미와 즐거움을 나누는 수학 스토리텔러, 수냐라는 별명으로 학교와 도서관 등지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다.

· 내용: 옷을 입는 데에도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에도 분명 방법이 있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진리를 깨달은 데카르트를 따라 이성을 발달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5. “사마천이 말하는 역사의 주체란 누구일까?” 사마천과 <사기>

· 도서명: 《사마천, 아웃사이드가 되다》

· 서지정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54162331>

· 작가소개: 이문영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어린이 역사책 <역사 속으로 송송> 시리즈의 저자이며, 청소년 글쓰기 웹사이트 글틴(teen.munjang.or.kr)의 이야기글 게시판을 맡아 청소년들의 소설 쓰기를 지도하기도 했다.

· 내용: 사마천이 궁형이란 치욕을 딛고 완성한 역사책 《사기》,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 6.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진정한 ‘법의 정신’이란? 몽테스키외와 <법의 정신>

· 도서명: 《몽테스키외, 무법자가 되다》

· 서지정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63822168>

· 작가소개: 박민미

동국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헤겔 철학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진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문화콘텐츠와 문화 철학, 역사 철학을 가르치며, ‘철학하는 엄마’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논술 지도서 및 청소년 철학서 등을 집필하고 있다.

· 내용: 몽테스키외는 자신의 저서 《법의 정신》을 통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분리인 삼권 분립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소중히 지켜 가야 할 ‘법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 본다.

## 7. 알파고 세대, 21세기에 필요한 철학은?

· 도서명: 《목자·양주, 로봇이 되다》

· 서지정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62277498>

· 작가소개: 김경윤

대학교 시절부터 공부한 문학, 역사, 철학, 사회과학을 통째로 활용 할 수 있는 인문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에 ‘자유청소년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 중이다.

· 내용: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한 미래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주의가 필요할까요? 개인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개인주의가 필요할까요? 과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상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 문학

### 1. 사춘기? 대화가 필요해! 사춘기 자녀와 부모의 대화법

· 도서명: 《사춘기라서 그래?》

· 서지정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41245504>

· 작가소개: 이명량

26세에 첫 장편 소설 《꽃을 던지고 싶다》로 많은 독자와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으며 소설가로 데뷔한 뒤 《삼오식당》, 《나의 이복형제들》, 《입술》 등의 작품을 출간했다. 이후 청소년 소설 《구라짱》, 《폴리스맨, 학교로 출동!》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등을 발표하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 내용: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던 모녀 사이도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하루라도 조용히 지나가면 입안에 가시가 돋칠 것 같은 모녀의 색다른 화해 방법!

## 2. 십 대의 성장: 자신의 삶에 물음표를 던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질문법에 대하여

· 도서명: 《저스트어모먼트》, 《환상비행》

· 서지정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649044>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63151797>

· 작가소개: 이경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해 오다가 하반기 인생은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로 살고 있다.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낯선 거리를 걷고 때로는 꿈을 꾸다. 지금까지 펴낸 청소년 책으로는 《나의 그녀》, 《나》, 《지독한 장난》, 《저스트 어 모먼트》, 《죽음과 소녀》, 《안녕히 계세요, 아빠》, 《환상비행》, 《성스러운 17세》

· 내용: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 인문

### 1. 십 대를 위한 디지털 인문학

· 도서명: 《누가 내 소프트웨어를 훔쳐 갔지?》

· 서지정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6523949>

· 작가소개: 양나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IT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관심이 초등학생을 위한 무료 코딩 교육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소프트웨어 교육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랩(AhnLab)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어린이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소년중앙]에 ‘양나리 선생님의 코딩 교실’을 연재했으며, 쓴 책으로는 《학교에서 통하는 스크래치 프로그래밍(공저)》, 《초능력보다 코딩(공저)》이 있다.

· 내용: 2018년 소프트웨어(SW) 교육 의무화에 앞서, 청소년들이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소프트웨어의 인문적 가치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질문!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가치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바꿔 놓을 미래 사회를 예측한다.

## 2. 청소년과 함께하는 법 이야기, 어린이와 함께하는 법 이야기

- 도서명: 《열정페이는 개나 쥐》
- 서지정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95680158>

· 작가소개: 창작크루 고은

우리 청소년들이 즐거운 독서 속에서 삶의 가치와 배움의 가치를 찾아가길 바라는 청소년어린이책 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의 프로젝트 그룹

- 내용: 청소년은 나중에 자라서 버젓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버젓한 인간이며, 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버젓한 노동자다. 오늘날 청소년 인구 열 명 중 세 명 이상이 알바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일하는 아이들이 많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짓고 이들이 하는 노동까지도 미성숙하다고 치부해 버리고 만다. 작가들은 이러한 시각에 일침을 놓으며, 청소년도 어른과 동등한 존엄한 노동자임을 법적 근거를 들어 이야기한다.

## 3. 그림으로 읽는 한 점의 인문학

- 도서명: 《문명은 어떻게 미술이 되었을까?》
- 서지정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78854692>

· 작가소개: 공주형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수근론’으로 미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교재 갤러리 큐레이터로 10년간 활동하였고, 2001년에는 조선일보 신춘문에 미술평론 부문으로 등단했다. 저서로는 《사랑한다면 그림을 보여 줘》, 《색깔 없는 세상은 너무 심심해》, 《아이와 함께 한 그림》, 《천재들의 미술노트》, 《착한 그림 선한 화가 박수근》, 《미술 시간에 가르쳐 주지 않은 101가지》, 《나를 완성하는 미술관》이 있으며, 현재는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내용: 그림 한 점에 담긴 인류 문명의 서사를 살피다. 권력과 욕망, 불안과 공포 등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들추어내며 그림 한 점에 담긴 인류의 문명사를 살펴나간다.

## 4. 외계인은 진짜 있을까? 없을까?

- 도서명: 《외계인을 찾는 지구인을 위한 안내서》
- 서지정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56869188>

· 작가소개: 오승현

서강대학교에서 국어국어문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엔 문학보다 다른 분야에 빠져 공부한 시간이 많았다.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쓰고 있다. 데미안 라이스의 음악을 즐겨 듣고, 한강의 소설을 좋아하며, 칼 세이건의 과학책을 흠모한다. 시끄러운 곳보다 조용한 곳을 좋아하며,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허례와 형식적인 걸 싫어한다.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논술과 글쓰기를 가르쳤고, 현재는 집필에 매진 중이다. 지금까지 《말이 세상을 아프게 한다》,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생각들》, 《외계인을 찾는 지구인을 위한 안내서》 등 여러 권의 책을 썼다.

· 내용: 외계인이 정말로 있을까?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겼으며, 그들과 어떤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외계인은 우리에게 적대적일까, 우호적일까?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가져보자.

## 5. 청소년의 삶을 긍정 에너지로 채우는 힙합의 힘

· 도서명: 《나를 찾아가는 힙합수업》

· 서지정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50486529>

· 작가 소개: 김봉현

음악 비평가,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이자 네이버뮤직 이주의 앨범 선정위원. 팟캐스트 ‘힙합 초대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인 래퍼들을 위한 무대 ‘모두의 마이크’를 주최하고 있다. 힙합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겨 내고, 힙합 고유의 멋과 매력을 알리는 직업, 힙합이 지닌 긍정적인 태도와 역동적인 에너지를 대중 및 청소년과 연결하는 작업에 관심이 많다.

· 내용: 힙합에 오해와 편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해소하도록, 힙합을 음악으로만 좋아한 사람이라면 문화이며 삶의 방식으로서의 힙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힙합을 통해 자신의 삶과 꿈에 긍정적인 영향과 에너지를 얻는 시간